

수소연료 전지 ‘미래 성장동력’ 키운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1년 성과와 전망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년간 수소연료 산업 첨병 역할과 전통신장·도심재생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도시 상생모델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자동차그룹과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수소 연료전지차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고 세웠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에 자리 잡은 1센터는 자동차·수소연료전지 분야에 집중하고, 서구 양동 KDB(옛 금호생명) 빌딩에 들어선 2센터는 시민생활 지원사업을 맡았다.

◇수소연료전지는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현대차는 광주의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인프라와 현대차의 기술역량을 융합해 전·후방 산업과 관련 기업 육성을 센터의 목표로 세웠다.

수소 연료전지차 연관산업의 기술·벤처 발굴 육성, 친환경 복합 충전과 에너지저장장치 기능이 결합한 융합스테이션 구축, 수소 연료전지차 관련 네트워크 마련과 인력 양성 등에 주력했다.

광주 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수소 관련 벤처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연구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공간을 제공했다.

현재까지 광주 혁신센터 내 1센터에는 자동차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한 벤처업체 10곳이 들어서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 창업 벤처업체 25곳 등 총 35개 업체도 기술이전,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경영 전반에 관련된 도움을 받았다.

또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기술 개발·검증 사업·창업·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대차가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관련 산업의 기반을 이곳에 뿌려 광주

대인·송정역시장 리모델링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발산마을’ 문화·예술 접목

자립가능 창조문화마을로

의 미래 먹거리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신장 활성화·지역 재생 사업도 지원=광주 혁신센터는 수소연료전지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노후지역 도심재생 사업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광주 대인시장과 송정역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신장 활성화 프로젝트’는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이미 가시화됐다. 대인시장 내에 한과를 판매하는 ‘막동이 한과’와 약초를 유통하는 ‘하루에 약초’를 시범점포로 운영하면서 상점주의 장점과 업종의 특징을 살리며 시설·서비스를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송정역시장은 시장 건물과 점포 외형을 최대한 유지한 채 100년의 전통을 지닌 시장의 역사를 테마로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시범 점포 사업으로 축적한 노하우를 향후 개별 점포의 개선을 원하는 상인들에게 제공하며 창업·업종변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컨설팅도 지원한다.

센터는 또 도심 공동화 지역인 서구 농성동 ‘발산마을’에 문화·산업·예술을 접목해 자립 가능한 창조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있다.

거주민과 함께 마을을 새롭게 꾸리고 예술공동체로서의 지역의 이미지를 키울 수 있도록



폭설에 뒤덮인 호수생태공원

25일 광주시 북구 호수생태공원에 폭설이 내린 뒤 공원 안이 하얀 눈에 뒤덮여 있다. 발효된 대설경보는 이날 정오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호수생태공원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록 센터가 마을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앞으로 100개 이상의 업체를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계획이다”며 “수

소 연료전지차 동반산업 육성이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경우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방정가

장재성 서구의원,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광주시 서구 장재성 구의원은 25일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김성우 광주는행농성동지점장과 양동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장 의원 등은 이날 양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10세대에 200장씩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장재성 구의원은 “광주는행농성동



지점이 그간 불우이웃돕기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들의 선물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들이 흙씨처럼 계속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여수시의회 의원 9명 더민주 탈당

전남도의회와 여수시의회 소속 박정재·주연창·서일용 의원 등 시·도의원 9명과 당직자 300명 등 309명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계파·패권정치 청산을 그토록 외쳤지만 더민주를 이를 외면했다”면서 “정권교

체를 바라는 (우리의) 염원과 달리 더민주를 희망과 믿음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탈당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광주시 감사위원회, 올 25개 기관·부서 감사

출범 첫해를 맞은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올해 감사계획을 확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시 본청 환경생태국을 비롯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도시철도 건설본부와 우치공원관리사무소 등 사업소를 포함해 25개 기관·부서를 감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동구, 서구는 종합감사 대상 자치구다.

감사위원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 ▲불합리한 관행 시정 감사 ▲탈무·은닉 예방과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재무감사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 위한 감사 ▲건축, 도시계획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특정 감사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은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2국 소속 광주 현직사무소가 설치된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후 처벌 위주에서 벗어난 예방감사와 적극적으로 일한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 홍보 강화도 당부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감사관실을 시장 소속 합의제 감사기구로 재편해 지난해 12월 1일 공식 출범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충선·동구청장 재선거 앞두고 광주 통장·자치위원 22명 사직

동구 9명 최다… 서구 한명도 없어

광주의 한 동주민센터에서 통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얼마 전 통장 자리를 내놨다. 그는 “매달 받는 20만 원의 수당이 아깝긴 하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국회의원 선거 사무를 돕기 위해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이던 B씨도 최근 정당의 사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위원직을 최근 포기했다.

4·13 총선과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으로 일하기 위해 사

직한 통장·주민자치위원이 모두 2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시 각 구청에 따르면 4·13 총선과 재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선거관련 사무를 돕기 위해 사직한 지역 통장·주민자치위원은 모두 22명이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한 동(洞)주민센터당 대략 3~4명씩 95개 동주민센터에서 190여명의 통장·주민자치위원이 사직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1/8 가량 적은 수치다.

공직선거법(제60조)상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으로 할

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사직한 관내 지자체의 주민자치위원은 20명이고 통장은 2명으로, 구별로는 ▲동구 9명 ▲남구 6명 ▲북구 4명 ▲광산구 3명 등이다. 서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구(區)에 비해 동구의 사직률이 유독 높은 이유는 총선과 동구청장 재선거가 한날 치러지기 때문. 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반면 총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낯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1인 선거비 1억3300만원

4·13 총선과 한날 치러지는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자 1명당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3300만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동구청장 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를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9만9776명으로 확정해 이 같이 상한액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동구 내 세대수인 4만6268세대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도 462매 이내로 제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농업소득직불금 2월1일~4월29일 접수

전남도는 쌀 소득보전직불금과 발농업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오는 2월1일부터 4월29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신청하고 읍면동을 달리하면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발농업직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발농업직불금은 자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다

만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오는 3월15일까지 신청해야 된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ha당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 지급된다.

모든 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윤현석기자 chadol@

밝은광주안과 의원

스마일 수술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라식·라섹의 단점은 최소화! 장점은 극대화 한 시력교정수술

신경손상이 적어 안구건조증 감소

각막을 열지 않아 외부충격에 더 안전

우수한 시력 예측, 시력예측도 가장 우수

SMILE

뒤어난 회복속도 빠른 일상생활 가능

만족스러운 결과, 1.0 이상 90% 시력유지

더욱 또렷하고 선명한 시력교정!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전문의료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